

교육의 미래

되기 위한 학습

국제미래교육위원회

경과 보고서

2021년 3월

이 문서는 국제미래교육위원회(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Futures of Education)가 교육의 미래 보고서 최종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2021년 3월과 4월에 진행되는 전세계적 의견수렴 및 대중 참여 절차를 알리기 위해 최근의 진행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의 서두는 이 사업과 목표에 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이 사업의 공조(co-construction) 및 자문 방식에 대한 소개와 교육의 미래 보고서의 구성 방식에 대한 간략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의 두 번째 장은 교육의 미래 보고서의 잠정 개요를 제시하고, 현재 구상하고 있는 주요 사항과 주장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피드백, 특히 (a) 제시된 주장의 일관성, (b) 강조하거나 추가할 요소, 그리고 (c) 내용 중 가장 새롭고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의견과 제안은 국제미래교육위원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견제출기한은 **2021년 4월 말**까지이며 다음 링크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https://en.unesco.org/futuresofeducation/2021-consultations>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futuresofeducation@unesco.org

배경과 취지

임무: 국제미래교육위원회는 복잡성, 불확실성, 불평등, 위험과 가능성이 증가하는 세계에서 교육을 다시 생각해보기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소집하고 사흘레워크 주드 에티오피아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다. 2021년 11월에 발표될 위원회 보고서는 전세계적 토론, 정책 대화와 다층적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의제를 제공하고자 한다.

진로 변경의 시급성: 위원회는 특히 이토록 심각한 보건, 거버넌스, 경제적, 환경적 위기의 시대에 희망을 만들고 교육이 어떻게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취지로 보고서를 준비하였다. 이 역사적인 전환의 순간에 우리는 세계적으로 공공성(the public)과 공동성(the common)의 차원에 가치를 부여하고 함께 학습하는 방식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교육에 대한 특정한 접근방식들은 이미 그 수명을 다하였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재 전략은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였다. 하물며 새로운 도전을 해결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교육은 인권으로서의 교육을 중심축으로, 공공재이자 집합적인 전지구적 책무로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한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재구조화(reframing)만이 우리의 공동의 인간성을 강화하고 타인, 자연 및 기술과의 지속가능한 관계를 보장할 수 있다. 우리가 생태적, 기술적 혼란을 해결하고 사람들이 함께 그리고 지구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으로 2050년을 맞이하고 싶다면 우리는 더 이상 똑같은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교육적 대응의 가능성과 한계: 우리는 교육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 많은 국제 담론이 이러한 환상을 부추기고 있지만, 그러한 환상은 곧 환멸과 불신으로 바뀌게 된다. 교육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교육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다.

광범위한 대중 및 전문가의 참여: 이 보고서는 광범위하고 전지구적인 대중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의견수렴(consultation) 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전세계적인 유네스코 석좌 네트워크의 참여, 배경연구자료, 전 세계에서 열려 현재까지 약 6,000명이 참여한 400여 개의 초점 집단(focus group)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이 포함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의견수렴도 진행했다. 여기에는 3,200여 개의 그림과 서면 의견서, 현재까지 수신한 설문조사 답변 85,000 건이 포함된다. 웨비나(webinar)와 이벤트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약 백만 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여 위원회 보고서를 공조하는(co-construct) 데 도움을 주었다.

공적 논쟁의 촉발: 위원회는 전세계적인 집단 참여 방식을 활용하고 그 영향력이 이

보고서 자체를 훨씬 뛰어넘는 담론과 생각을 촉진하기 위해, 이렇게 광범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통합하고 있다. 2021년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발표될 교육의 미래 보고서는 교육의 목적과 역할을 다시 생각하기 위해 전 세계 교육 공동체를 촉진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위원회는 확정적인 청사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형태의 비전 문서를 작성하려 한다. 교육의 미래 보고서는 다른 이들이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2050년을 위한 “재생적 교육”(Regenerative education): 위원회가 205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도록 요청받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교육에 관한 이전의 유네스코 세계 보고서들(Learning to be(존재를 위한 학습), 1972; Education: a treasure within(교육: 내재된 보물), 1996)처럼, 교육의 미래 보고서의 목적은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 의도는 또 다른 “미래주의적” 운동을 만들거나 혹은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한 미래를 설계하고 과거의 불의를 수정할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을 만들기 위해 유망한 방도를 찾는 것이다. “재생적 교육”은 치유하고, 바로잡으며, 재창출하고, 새로 시작하는(heals, repairs, repurposes, and renews) 교육으로서, 모두를 위한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는 길 위에 세계를 올려놓을 만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여러 가지 미래: 이 사업은 (단수가 아닌 복수로서의) 교육의 “미래들”(futures)에 대한 것이다. 하나의 유일한 미래를 정의하려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세상에 하나의 유일한 미래를 부여하는 것은 비양심적이며, 2050년 세계의 모든 면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 대신, 위원회는 가능한 미래들의 - 공동의 대의(common causes)를 중심으로 한 협력과 집단행동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아는 것과 존재하는 것의 다양한 방식을 유지하는 미래 - 다원성에 대한 상상력을 펼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고서의 취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및 그 교육 목적들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부터 무엇을 더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성찰과 함께 단기적으로 정합성 있고 일관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중요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보완하는 것이다.

현존하는 희망의 씨앗 위에 구축하기: 미래를 희망적으로 볼 만한 큰 이유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교사, 공동체, 기구, 정부 등이 많은 유망한 교육 사업을 착수했다. 이런 희망의 씨앗들과 그것들이 풀어내는 가능성들을 잘 키울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교육의 미래 보고서가 여기에 제시된 이상을 공유하는 수백만 교육자 및 연합들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 바란다.

인본주의의 재구조화(Reframing): 교육의 미래 보고서는 교육이 하나의 공공재이자 기본적인 인권임을 확신하면서, 교육이 개인 및 집단을 자유롭게 한다는 비전(emancipatory vision)에 의해 정의된 인본주의 전통 위에 만들어질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지구와 다른 모든 생명체로부터 인류를 분리시킬 수 없다고 인식하는 새로운 인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미래들을 위해 우리는 미래 세대와 우리가 속한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불평등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는 또한 급변하는 기술 변화의 시대에서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우리가 인간 이상의 세계(a more-than-human world)와 관계를 재정립하는 결정적인 방식 중 하나이다. 상호의존적이며, 배려하는 공동의 미래의 가능성은 교육에 크게 의존한다. 교육은 함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양성에 가치를 부여하는 인류로 가는 길을 가능하게 하며 강화한다.

잠정 보고서 개요

서론 - 공동의 미래를 위한 재생적 교육(Regenerative Education)

위험에 처한 인류의 생존과 지구
전지구적 공동재(global common good)로서 교육의 강화
공유된 미래들을 위한 인본주의의 재구조화

1. 교육의 세계 - 현재와 미래

인간의 활동으로 변형된 지구
디지털, 생명공학과 신경과학의 발전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구 이동
직업 세계의 불확실한 미래

거버넌스와 민주적 참여에 대한 근본적인 불확실성
지적 탈식민화와 인식론의 다양성

2. 2050년을 향한 다시 생각하는 교육

보다 광범한 사회에서의 교육의 지위: 공동 공교육의
강화
교육의 조직과 거버넌스: 포용적인 교육 생태계 구축
교수 및 학습의 내용과 방법: 지식의 공조 및 교수법적
공동화 (pedagogical commoning)의 촉진

교사를 위한 새로운 시대
고등 교육의 핵심 역할
전지구적 연대와 국제 협력의 시급성

3. 공공행동을 위한 선언문-핵심 메시지

4. 에필로그 및 계속 이어가기

서론 – 공동의 미래를 위한 재생적 교육

2020년과 2021년은 사회, 공동체와 개인의 삶에서 양질의 공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었다. 우리 모두는 교육이 불평등에 대항하는 보루이자 집단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핵심 수단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또한 **교육 시스템의 설계,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구성, 교육과정 및 교수법적 접근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높아졌다. 이제는 그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변화, 즉 우리가 전환점에서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교육의 역사적 유산을 보전해야 한다는 열망을 대변하고자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 즉 우리에게서 다른 교육과 다른 학교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위험에 처한 인류의 생존과 지구

사회 및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의 상실, 지구위험한계선(planetary boundaries)을 넘어선 자원 사용, 민주주의의 퇴보와 파괴적인 기술 자동화는 우리가 현재 처한 역사적으로 중대한 시점을 나타내는 특징적 현상이다. **우리는 모순적 경향으로 점철된 전지구적인 인류발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빈곤 수준은 줄어들었지만 불평등은 더욱 커졌다. 교육의 확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었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질 낮은 학습을 받았고 내쳐졌다. 경제 성장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가속화되어 생물 다양성뿐만 아니라 사실상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인간의 창의성이 발현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와 공동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곳곳에서 시민적 삶(civic life)과 민주주의는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사회적 긴장과 불신은 끝없이 커지고 있다.

우리는 지속 불가능한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진로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인가의 실존적 선택에 직면해 있다. 현재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은 인간들 간의 비양심적인 불평등과 착취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지속하려는 것은 대규모의 지속적인 환경 파괴와 생물 다양성 상실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의 과정을 계속하는 것은 기술이 던져주는 약속에 사로잡혀 우리가 속한 변화에 따르는 위험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현 세계의 특징인 중첩된 여러 위기는 개인과 집단의 인권을 제한하고 자연 환경에 스트레스를 가하고 있다. 무책임한 인간의 행동과 우리가 만들어낸 사회, 정치, 경제 시스템이 이러한 위기를 불러왔다.

다가올 미래를 내다볼 때 너무나 쉽게 더욱 암울하고 어두운 미래의 모습을 그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형태의 생명체도 살 수 있는 거주 공간이 고갈되어 가는

지구를 상상할 수 있다. 또한 극단적인 미래 시나리오는 필수품을 구할 수 없어 많은 인구집단이 비참한 상태에 처한 세계를 그리고 있다. 미래의 세계는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작업이 자동화되어 그에 따른 풍요로움의 혜택을 누리는 모습 대신 수십억 명의 '실업자'가 기본적인 생존만을 근근이 유지하는 삶으로 전락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 미래의 세계는 인간이 우리의 자유, 자율성 및 현명한 집단 의사결정 능력을 값어치는 왜곡된 가상현실에 압도당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잃기 전에 인간성을 상실하게 될 것인가?

위원회는 우리가 함께 미래를 개인, 사회와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 평화 및 지속가능성의 공간으로 바꿀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교육이라는 세대 간 대화는 이를 위한 필수적인 자원이다. 위원회의 협의 과정에서 교육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상상하는(reimagining) 방법으로 “재생적 교육(regenerative education)”이라는 개념이 여러 차례 등장하였다. 이 개념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교육의 재생 잠재력을 끌어올린다. 그러나 또한 이 개념은 너무 자주 소외되는 문화와 인식론의 가치화(valorization)를 통한 치유와 보상적 정의(reparative justice)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이 개념은 전 세계의 많은 장소와 교육 사업에서 이미 존재하는 형태의 교육으로부터 교육의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 결국 교육 그 자체가 어떻게 새로운 세대가, 세대 간 그리고 생성을 통한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교육은 엄청난 재생 잠재력(regenerative potential)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가 모두를 위한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길을 가도록 도울 수 있다. 재생적 교육의 개념은 교육 기관, 교육과정 및 교육 관행의 구성에 명백한 영향을 준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교육을 구성하고 기회를 구조화하는 방식은 평화로운 사회, 살기 좋은 지구, 그리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동의 진보(shared progress)를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전지구적 공동재로서 교육의 강화

이러한 재생적 교육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가장 일관된 방법은 유네스코가 2015년 발간한 '다시 생각하는 교육(Rethinking Education)' 보고서가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채택한 **전지구적 공동재로서의 교육** 원칙이다. 수십만 명의 학생, 교사, 교육자, 부모, 활동가 및 정책 입안자들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동재로서의 교육'에 대한 강력한 비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교육과 지식은,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중요성 중에서 물, 대기, 생물 다양성만큼이나 가장 중요한 전지구적 공동재 중 하나이다.

위원회는 '전지구적 공동재(global common good)'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에 대한 **집단적인 글로벌 책무**를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원회는 우리가 **공동으로 구축하는 것과 이를 관리하는 방법**(명사로서의

'공동성(the common)', 그리고 우리가 **구축하고 공동으로 협력 구성하는 방식**(행동으로서의 '공동화(communing)')를 핵심으로 내세우고자 한다.

명사로서의 '**공동성(the common)**'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문화적 전통을 통해 정의되고 유지되는 공동의 목표에 대한 집단적 접근과 관리책임(stewardship)을 가리킨다. 위원회는 교육의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가 획일적이고 균질화되며 식민주의적인 전통을 깨고, 교육을 개방하여 다양한 문화와 인식론을 발전시키고, 배려, 우분투(ubuntu), 테랑가(teraanga),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 야니 이 밍카(ayni y minka)와 같은 개념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이 공동체인 세계는 상향식(bottom-up) 지역 주도 사업이 꽃을 피우고, 자기 조직적(self-organized) 거버넌스도 대규모로 성공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조화될 때, 교육 사업과 기관은 전체적으로 공적인 방식으로 관리되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음으로써 강력한 이해관계에 사로잡히거나 일부의 이익에만 전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공재 중심의 교육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교육 기회를 제약하는 **장벽과 '구획(enclosures)'**이 너무 쉽게 구축된다. 교육 구획은 구조적 차별과 배제, 정보·지식·교육의 사유화, 독점적 디지털 기술에 대한 강제적 의존, 지적 재산권의 남용, 교육 데이터의 상업화 등 다양한 형태를 띠 수 있다.

행동으로서의 '**공동화(communing)**'란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는 협상, 의사소통, 상호 지원 및 협력 행위와 같은 함께 만들어가기(building together)를 말한다. 교육에서 공동화는 교육과 학습의 관계적이고 집단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식 및 교수법의 공조(co-construction)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공동화는 잠정적이고 깨지기 쉬우며, 불일치와 차이를 포함한다. 그러나 우리는 따로일 때보다 함께 할 때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다.

교육을 전지구적 공동재로 만들고 돌보는 것이 바로 재생적 교육이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응하고, 인류와 지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며, 지속적인 세계의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도록 담보하는 방식이다.

공유된 미래들을 위한 인본주의의 재구조화

위원회는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에 대한 권리의 약속, 교육이 과거의 불의를 바로잡을 수 있고 살기 좋은 집단적 미래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약속을 이행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기반으로, 위원회는 2050년을 목표연도로 인권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일을 완수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인류에 대한, 그리고 인본주의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로와의,**

그리고 지구와 기술과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우리의 접근방식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1. 교육의 세계 – 현재와 미래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교육을 사회와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로 간주해 왔다. 전 세계의 가족, 공동체와 정부는 현대 교육 시스템이,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기회를 창출하고 개인과 집단의 발전을 위한 경로를 제공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형식교육(formal education)이 성평등, 보건 및 복지 성과를 향한 진전, 직업 세계에 대한 준비, 참여하는 민주적 시민성의 지원에 – 비록 이러한 분야에 대하여 교육이 유일한 요소는 아니지만 – 중요하다는 사실을 널리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학습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은 설정된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2억 5천만 명을 넘었고,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중 50% 이상이 최소 수준의 문해력과 수리력조차 성취하지 못해, 소득·성별·거주지·소수집단·장애 등으로 인해 가장 취약한 학습자 및 그들의 지역사회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기존에 “세계 학습 위기”라고 불렸던 상황이 팬데믹으로 인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의 확대, 역사적으로 소외된 인구집단에 대한 포용(inclusion), 문해 및 수문해(numeracy), 교육의 질, 학습의 적합성, 평생학습 시스템과 우호적인 환경 조성과 관련된 교육의 역사적 동향과 지속적인 도전과제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전 세계 교육 현황과 글로벌 2030 의제 공약 및 목표를 향한 진전 상황에 대한 확인은 새롭고 긴급한 대응에 대한 위원회의 요청을 구조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진단을 바탕으로, 위원회는 교육을 심대하게 변화시킬 두 가지 주요한 전환기적 변화, 즉, 인간 활동으로 변형된 지구, 그리고 디지털, 생명공학과 신경과학의 발전을 분석한다.

인간의 활동으로 변형된 지구

인간의 활동에 의해 지구가 변형되어온 방식은 미래의 교육 및 학습 조직의 목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너무 오랫동안 교육은 성장 중심의 모더니즘적 개발 패러다임에 기초해 왔다. 지구와 공감하는 우리의 방식을 접목한 인류에 대한 새로운 생태학적 이해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2050년을 목표연도로 긴급하게 교육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기상 이변에 대한 특정 종류의 기후변화 적응은 이미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계를 지속가능한 길로 인도하려는 노력이 완전한 성공을 거둔다 하더라도, 지구 생태계의 변화는 2050년과 그 이후까지 여전히 교육 기회 제공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의 상실, 환경 파괴 및 지구의 수용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생활 방식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은 다시 생각하는 교육에 핵심적인 영감을 제공해 주었다.

디지털, 생명공학과 신경과학의 발전

디지털 지식이 가진 특질은 지식 다양성, 문화적 포용성, 투명성과 지적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알고리즘 권장 사항, 플랫폼 제국주의 및 디지털 인프라의 현재 거버넌스 패턴은 교육을 전지구적 공동재로 유지하는 데 커다란 도전을 던지고 있다. 생명공학과 신경과학의 발전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인간 공학을 촉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을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우며 평화로운 미래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적절한 윤리적 거버넌스와 인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미래는 개방형 데이터, 개방형 과학, 그리고 데이터,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교육권에 대한 확장된 이해에 달려있다.

이 두 가지 전환기적 변화는 향후 30년 동안 펼쳐질 교육 시나리오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가 교육을 생각하고 실행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제기되는 교육 쟁점들, 특히 교육의 디지털화와 "하이브리드" 학교의 출현은 현재 교육에 관한 모든 논의의 중심에 있으며, 위원회가 심도 있게 논의할 주제이다. 이러한 전환기적 변화 중 우리가 교육의 목적과 시공간을 정의하는 방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다른 두 가지 새로운 변화는 인구구조의 변화 및 인구 이동, 그리고 직업의 불확실한 미래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구 이동

인구구조의 변화는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2050년 인구 전망 역시 교육의 조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인간 수명의 연장으로 어떤 지역에서는 4세대가 역사상 결코 전례 없었던 방식으로 같은 시공간에서 함께 살게 될 수 있다. 일부 지역에는 고령 인구가 많아지는 반면, 아프리카와 같은 다른 지역에서는 대규모 청소년층 팽창(youth bulge)이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될 전망이다. 늘어나는 인구 이동은 강제 이주,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와 함께 교육이 어떻게 조직되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떤 언어로 배우는지에 대해 많은 잠재적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성인 교육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며, 전통적인 인간 생애주기 단계가 문화에 따라 새롭고 다양한 형태를 보일 때, 평생 학습은 이에 따라 재구성될 것이다.

직업 세계의 불확실한 미래

직업 세계에서는 거대하면서도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영향을 미칠 변혁적 혼란(Transformative disruptions)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자동화를 중심으로 기술 발전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일자리에서 근로자의 능력을 보완하고 증대시켜 줄 것이다. 몇몇 일자리는 사라지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부문과 지역에 따라 그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녹색 경제에 대한 압박 증가, 성별 격차 해소, 전지구적 불평등이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긱 경제(gig economy)'의 부상은 전통적인 자격증명(credentialing) 구조를 바꿈으로써, 이미 교육과 고용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2050년의 경제 세계에서, 불안정하고 불안정한 고용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비공식경제가 전 세계 수십억 사람들에게 보다 중요하게 다가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상태이다. 돌봄 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재검토와 복지 제공의 강화 또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변혁적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다. 교육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전통적인 경로는 완전히 새로 만들어져야 할 수도 있다. 경제적 복지의 의미와 그것을 교육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교육, 그리고 교육이 고려해야 할 공동체와 일반 시민의 전반적인 환경을 재편하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일자리의 미래와 관련된 쟁점들은 학교에 일자리로의 이행(school to work transition)의 핵심이며, 2050년에 근본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의 현실에 비추어 심층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1부를 마무리하면서, 위원회는 가장 중요하고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쟁점, 즉, 거버넌스와 민주적 참여에 대한 근본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지적 탈식민화와 인식론적 다양성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거버넌스와 민주적 참여에 대한 근본적인 불확실성

현재 세계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버넌스 위기와 민주주의의 퇴행은 정치적 영역에서 근본적인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편견과 차별, 권위주의, 표현의 자유 침해의 가속화는 모두 인권, 시민성, 지역적, 국가적, 전지구적 차원의 시민 참여에 뿌리를 둔 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시에, 많은 지역에서 점점 더 시민참여와 행동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변혁의 아직은 알 수 없는 궤적은 적어도 수십 년 동안 흔적과 영향을 남기며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교육 의제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교육에 대한 접근과 교육과정 및 교수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이 결국 전지구적인 정치적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육에 다양한 함의를 남기게 될 것이다.

지적 탈식민화와 인식론적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과 인식론이 미래에 어떻게 서로 만나게 될지는 여전히 역동적이고 답이 정해지지 않은 질문이다. 위원회는 지침이 될 만한 일련의 핵심 원칙(예를 들어, 단순히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의무)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또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 사회 정의와 반인종차별 운동이 사회로 하여금 스스로를 조직하는 방식을 심층적으로 다시 생각하도록 만들 것인가? 수업 중 사용하는 언어가 바뀌어서 학생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모국어)가 교육에서 더 선호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비다수결적(non-majoritarian) 관점, 대안적 전통과 토착적 방식의 존재와 앎(being and knowing)에 기반하여 교육과정과 교수법을 새롭게 상상하는 것과 큰 관련이 있다. 다원주의, 문화유산, 토착어에 대한 유네스코의 인본주의적 접근방식의 오랜 기반은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새로운 이슈는 아님을 상기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탈식민지화, 회복적(reparative) 미래, 진실 대 '가짜 뉴스' 주장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대화를 비판적이고 개방적이며 변혁을 일으키는 혼란의 범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이 인류 발전에 대한 많은 함의를 제시하고, 향후 수십 년 동안 교육의 영역에서 일어날 일들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한다.

이 두 가지 측면은 교육의 미래 보고서의 내용과 권고사항에서 중심 부분이 될 것이다. 미래의 교육 세계는 이러한 모든 새로운 변혁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추세와 혼란은 우리가 교육을 이해하고 조직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야 할 시급성을 강조한다.** 교육이 단독으로 이 일을 해낼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은 동시에 교육이 가진 모든 잠재력을 인식하는 것이다. 각각의 쟁점에 따른 적절한 교육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는 위원회가 보고서의 제2부에서 명시적으로 다룬 과제이다. 이 장에서 위원회는 교육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정의하고 이를 정책과 실천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한다.

2. 2050년을 향한 다시 생각하는 교육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교육은, 학교와 학습이 모두를 위한 웰빙과 형평성 그리고 지구와의 건강한 관계를 폭넓게 지원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열망에 한참 못 미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가능성의 한계에 도달했는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교육이 구성된 바로 그 방법 때문에 발생하는가?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제 중 일부는 우리의 교육 내용과 방법에서 비롯된 것인가?**

위원회는 보고서의 중심이자 가장 광범위한 부분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한다. 위원회는 2030 의제에서 촉구한 교육 분야의 국제적 공약을 계속 지속하고 이행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는 한편, 또한 전지구적 공공재와 공동재(global public and common good)로서 재생적 교육을 위한 새로운 길을 상상하기 위해서는 용기, 대담성과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원회의 제안사항들은 우리가 하나의 역사적 주기의 끝에 도달했고 새로운 교육 패턴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깨달음에서 출발한다.

지난 2세기 동안, 사회와 가족이 교육적 책임의 상당 부분을 학교에 위임하는 일종의 '교육을 위한 사회적 계약(social contract for education)'에 기반한 비교적 균일한 학교 교육에 대한 비전이 일반적이었고,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학교 교육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방식으로 조직되었다. 이 '계약'은 한동안 압박을 받아왔다. 이 계약은 수십 년 전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아왔다. 이는 정보통신 기술이 열어 놓은 가능성의 확대, 지식의 원천으로서의 교사와 학교의 독점적 지위의 종식, 평생 교육에 대한 관심의 확대, 정합성에 대한 진행 중인 위기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의 기초역량을 보장하지 못 하는 시스템적 실패 등 주요 요소로 인한 것이다. 2020년과 2021년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이 계약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었다.

교육의 미래 보고서의 제2부에 수록된 제안사항은 교육에 대해 이와 다른 비전과 목적을 가진, 희망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계약'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접하는 일련의 추세와 관심사는 '학교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뒷받침해 왔다. 일각에서는 학교가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무한히 많은 장치 기기와 접근방식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이 모든 것은 학습의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학교는 시대에 뒤떨어진 쓸모없는 제도로 인식된다. 교사는 소모성 직업군이 되어, 다른 형태의 모니터링과 감독으로 쉽게 대체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의 기반이 되는 전제는 경험이나 증거에 근거하지 않았음에도, 교육기술(EdTech) 산업이 이끄는 글로벌 교육 시장의 전례 없는 확장에 힘입어, 우리를 위험한 길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비전은 입증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 하면서 사회 제도를 파괴하고 있다. 우리는 재생적 교육의 이름으로 이에 대해 저항해야 한다.

위원회는 새로운 '교육을 위한 사회적 계약'이 공공재이자 공동재로서 교육을 수호하는 데 기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원회는 개선과 변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전반적인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재(common) 중심의 교육을 제안한다. 교육의 변혁은 공교육과 교직이 물려받은 유산을 수호하고 확장하는 데 기반을 두어야 한다. 혁신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만이 아니다. 새로운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유산의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 많은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민주주의, 동등한 기회와

형평성을 위협하는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재생성(regeneration)은 우리가 공교육과 민주적 교육을 위해, 그리고 그들이 누구이든 어디서 왔는지에 상관없이 다양한 모든 인간을 환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협력과 창조의 학교를 위해, 오랜 전투를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의 제안사항은 (a) 더 넓은 사회에서의 교육의 장, (b) 교육의 조직 및 거버넌스, (c) 교수 및 학습의 내용과 방법 등 세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 넓은 사회에서의 교육의 장: 공동 공교육의 강화

이 첫 번째 초점 분야는 새로운 교육 구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2세기 동안 교육 정책과 접근방식은 기관으로 구성된 교육 시스템의 조직과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제 우리는 광범위한 연결, 공간 및 시간의 틀 안에서 교육에 대해 훨씬 더 넓은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첫 번째 분야를 정의하는 교육의 개념은 기관의 차원을 넘어선 교육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가 말하는 공교육은 국가가 후원하는 학교 교육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공교육은 무엇보다 다름(differences)과 다양성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동일한 인류(same humanity)에 대한 공동의 소속감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공동의 삶, 상생하는(convivial) 사회를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지의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공교육이 필요하다.

공동의 공교육을 구축한다는 것은 교육을 둘러싼 논의, 참여와 행동의 광범위한 공공영역을 필요로 한다. 교육에 대한 일관된 목적의식은 공공의 공간에서 무엇인가 공통적인 것이 일어날 때만 나타난다. 이러한 공동의 공교육은 강력한 사회적 참여와 강력한 숙의 역량(capacity for deliberation)을 통해서만 존재한다. 이는 단순히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을 공공적으로 조직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참석과 참여가 요구된다.

위원회는 특히 코로나19 대응의 맥락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 교육은 항상 모든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견해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한 학교 교육의 중단 시 교육을 가정으로 이전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학습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교육에 관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없다. 특히 디지털의 방대한 가능성을 탐구할 때 모든 교육 자료의 뒤에는 구조(architectures)와 설계자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대단히 다양한 교육과정과 실천의 목적 정합성을 인식하면서, **교육은 필연적으로 열려 있고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의도성, 계획, 그리고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운에 맡기기에는 너무나 중요하다. 교육을 사적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교육 부문에서 행위자의 다양화는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의 재생력(regenerative power)을 활용하는 공공 기관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 환영받아 마땅하다. 교육은 개별적 실천이자 집단적 노력이다. 공교육은 단순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학습 지도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공교육은 일반 대중을 교육한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공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모든 연령대의 학습자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학습을 고려하며, 예를 들어 박물관, 도서관 및 공동체 시설, 스포츠, 극장, 과학센터 및 문화 생산물을 포함한다. 다양한 인간을 공공 공간에 한데 모으는 교육은 공동의 목적을 수립하고 실현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2050년을 목표연도로 더 넓은 사회에서의 교육의 장에 관해 생각할 때, 인간의 수명이 꾸준히 100년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하여 '성인 교육'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실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교육 과정에서 알려지고 예견되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직업과의 관계나 정치환경을 경험할 때 교육은 어떤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

19세기부터의 '교육을 위한 사회적 계약'은 산업혁명의 맥락에서 성인의 자유 시간을 확보하고 노동을 새롭게 조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가정 및 경제 생활이 학교의 속도에 의해 규제받는지 상기시켜 주었다. **교육과 사회 간의 새로운 사회적 계약은 우리가 가족과 사회적·업무적 시간·공간 간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위원회는 교육 및 교육 정책의 실천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를 촉구한다. 우리는 교육 시스템의 관점에서 출발하는 대신 교육을 위한 공동의 공공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이는 가족, 공동체, 지역 및 국가 당국, 대학, 공공 및 민간 기관과 연계하여 교사가 주도해야 한다. 우리는 계속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위대한 문화유산과 지혜가 있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해결책은 없다. 해결책은, 협력적으로, 세계의 맥락과 문화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야 한다.

교육의 조직과 거버넌스: 포용적인 교육 생태계 구축

위원회는 디지털화로 인한 결과를 포함하여, 학교와 기타 교육 기관의 조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원회의 관점은 함께 공부하고, 일하고,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생태계를 새로 시작하고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교육은 지식을 공유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배우고, 다름을 마주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간이다.

위원회는 학교와 대학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교육 기관뿐 아니라 도서관, 박물관, 지역

라디오, 비상업 방송(public access television), 디지털 공유지(spaces of digital commons), 그리고 아직 꿈도 꾸지 못했던 제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형식 교육과 무형식 교육에까지 미치는 교육기관의 다양성에서 우리는 오래된 문제와 새로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생애 첫 몇 년간의 학습에 대해 알려진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유아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모든 단계의 교육과 같이, 20세기의 성인 교육과는 완전히 달라진 성인 교육의 새로운 지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제는 인적자본 구축이 아니라 인간존재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학교가 안고 있는 모든 결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학교라는 제도는 여전히 가장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제도 중 하나이다. 실제로 전지구적 대유행병으로 우리는 학습을 위한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서비스의 중심으로서의 학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지역센터로서, 학교는 자립과 자연과의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계를 다져 나가기 위한 강력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환경이 사회적 관계 형성을 촉진시킨다는 점이다. 교육과 학습은 인간의 상호작용, 대화와 교류에 대한 것이다. 학교는 온라인이나 원격 학습으로 충분히 대체될 수 없는 집단생활의 한 형태이다. 또한 학교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에 직면하며,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에는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교육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육 생태계가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일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학습은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다. 학습에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독학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에 의존한다. 이러한 관계와 상호의존성 속에서 교육이 발생한다. 인간은 스스로 학습하지만, 또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우리를 서로, 또한 세대간에 연결시켜주는 이 아름다운 역동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교육 생태계를 상상하는 것은 건축(architecture), 교육과정(curriculum)과 교수법(pedagogy)을 다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건물은 19세기에 처음 만들어졌던 당시의 대담함과 창의성으로 새로이 설계되거나 개조되어야 한다. 새로운 교육 생태계는 학생들이 달리 접할 기회가 없었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를 위한 것이다. 학교를 가정학습이나 디지털 공간 학습과 구분 짓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학교,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특수성에 대한 변론을 제시함에 있어, 위원회는 학교와 다른 사회적 공간, 그리고 다른 교육 기관과의 연계의 중요성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 교육 활동은 점점 더 이러한 연결과 접합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새로운 포용적 교육 생태계는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교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19세기에 학교 모델을 구축한 당시와 같은 각오로 새로운 교육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적 참여의 중요성을 존중하면서 교육의 거버넌스 시스템과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 다행히,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의 교사가 이러한 방향으로 진전을 이루었다. 그들의 노력을 보다 잘 알리고 지원해야 한다. 포용성은 이러한 다양성을 통해 발견되어야 하며, 설계에서 지침 원칙이 되어야 한다.

교수 및 학습의 내용과 방법: 지식의 공조 및 교수법의 공동화(pedagogical commoning)의 촉진

우리는 세계의 다른 사고방식과 존재 방식, 특히 역사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사고 방식과 존재 방식을 기꺼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미래를 생각하는 것에는 반드시 과거를 바로잡는 것, 교육과정의 탈식민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발생시킨 것들은 잊도록 하는 것(unlearning)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교육이 재생적이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전통적으로 가르쳐온 내용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 주제와 문제를 포함하고, 연구와 학습자 주도 프로젝트를 통해 발전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은 전통적 기술 외에도 비판적 사고와 지역 및 전지구적 차원의 시민성과 민주적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아들여 통합해야 한다. 이의 핵심은 상호주의 원칙이다. 공감능력(Empathy)은, 정서적으로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처지가 되어보고 그들의 감정과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으로서, 교육의 기본 요소이다.

교육과정은 '완성된 지식'이 아니라 항상 검토되고 업데이트되는 지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학생들이 자신이 배운 것을 맥락화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과목을 마치 물려받은 유산이자 세대 간 대화의 일부인 것처럼 가르치게 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은 세계의 지속적인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위원회는 교육과정과 교수법의 미래에 대해 이들이 디지털 기술을 만들고, 또 디지털 기술에 의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혁은 그에 수반하는 모든 잠재력, 우려와 위험에 관해 고려해야 한다. 디지털 공동성을 지향하고 현재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구획을 피하는 것이 교육의 미래의 핵심이다. 비록 인간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끊임없이 진화한다 하더라도, 공동성의 개념과 인간의 필요는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 과정으로서의 공동화는 디지털과 관련이 있든 없든 우리의 모든 접근방식과 의사결정에서 가치 있게 평가되어야 한다.

교육 공동화의 예를 들면 '수업(lesson)'을 공동 탐구로 변환하는 것, 교사가 제공하는

콘텐츠보다 학생 주도 학습으로 교육을 적응시키는 것, 그리고 협업이 필요한 문제 기반 및 프로젝트 기반 활동을 촉진하는 것 등이다. 교사들 간의 협업은 교육 공동화의 모범을 보이고 촉진시킨다. 위원회는, 개인들이 집단 행동을 위해 협업하는 것이, 사람들이 만들고자 하는 미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가장 중요한 학습 니즈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대인 관계, 의사소통, 팀워크 협력, 조정, 공감, 관점 파악, 신뢰, 서비스 지향, 갈등 해결, 협상 등 다양한 역량이 투입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운 것을 발명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모든 교육 활동의 훌륭한 예시가 이미 있으며, 그러한 활동은 권장되어야 한다. 공동의 인류(common humanity)을 위한 재생적 교육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위원회는 위에서 제안한 이 세 가지 차원이 모두 광범위한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재생적 교육에 힘을 실어주며, 공공재이자 공동재로서의 교육 원칙을 촉진할 것으로 본다. 각각의 차원은 최종 보고서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를 전개하고 유망한 실천의 예를 통해 설명될 것이다. 교사 및 고등 교육 관련 쟁점들은 당연히 각각의 차원에서 살펴볼 것이나, 위원회는 공식화된 제안의 강력한 조력자(enablers)로서 교사와 고등 교육기관들에 대해서도 따로 지면을 할애해 자세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이어서 제2부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전지구적 연대와 국제 협력에 대한 성찰로 마무리한다.

교사를 위한 새로운 시대

교사들이 하는 일은 위원회가 제안한 것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교육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으며, 공동의 공교육, 새로운 공유된 교육 생태계와 교육의 공동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람, 단체와 연합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모든 것이 디지털 수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심지어 '개인교사(tutor)' 또는 '코치'가 충분히 교육을 보장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화시켰다. 위원회는 이러한 접근방식이 잘못되고 해롭다고 판단하고 교육 업무에는 높은 수준의 교육훈련과 지원을 받고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신념을 강조하고 있다.

유아교육부터 성인교육까지의 교사들은 새로운 역할과 도전에 직면하고, 교직 내에서 그리고 다른 집단 및 기관과의 관계에서 많은 협업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효과적인 교수는 개별 교육자의 단독 생산물이라기보다는 협업의 결과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는 교직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교사 교육 및 전문성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고등 교육의 핵심 역할

고등 교육은 지식과 교육 공동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학은 지식과

연구 생산을 위한 전 세계의 잠재력을 상당히 지니고 있다. 고등 교육 기관은 현재 2억 명의 학생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인구 중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 모든 전망은 이 수치가 향후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학은 공동성을 지원하는 고귀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학계는 수세기 동안 학술적 생산물을 공유 가능한 재화로 취급해 왔다. 고등 교육 기관은 개방형 학문과 개방적 접근(open access)에 대해 준비된 협력자다. 대학 간 협력 및 국제화 노력은 전지구적 공동성에 기여할 가능성이 큰 개방성의 한 예이다. 그러나 대학은 특히 최근 수십 년 동안 비용 장벽과 지적 재산권 주장을 통해 많은 구획이 생산되는 곳이기도 하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등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배제와 소외가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다.

고등교육 분야의 발전 가능 방향에 대한 분석은 다른 곳에서 많은 작업이 수행된바, 논의된 내용 중 많은 부분이 고등교육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위원회는 고등교육이 어떻게 변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위원회는 대학에 대해 '도시'와 '키비타스(civitas)', 즉 대학 관할지구 자체보다 더 넓은 사회적 공간에서 강력하게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고등교육은 교육을 전지구적 공동재로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중 한 가지로서 대학은 유치원에서 중등교육에 이르는 다른 교육 기관뿐 아니라 성인교육 기관, 박물관, 도서관과 예술 단체를 지원하는 것까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 초기 교사 교육과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등 교사교육에 대한 대학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 끝으로, 대학은 교육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학교 및 교수법의 혁신을 강화하는 연구를 생산하고 지식의 순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전지구적 연대와 국제 협력의 시급성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사업의 목표를 감안할 때, 위원회의 고찰이 전지구적 연대와 국제 협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지구적 공동재로서의 교육 원칙은 즉각적으로 전지구적 책임으로 관심을 이끈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전 세계 과학 공동체가 전례 없이 집결했고, 정부와 공공 및 민간 단체의 지원을 받았다. 이것은 인류의 미래에 근본적인 위험이 닥칠 때 전지구적 연대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사례였다. 이 개방적이고 협업적인 과학 운동이 백신 발견 이후 구획을 겪었다고 해서 초기의 역동성이 폄하될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가 전지구적 공동재에 대한 초점에서 멀어질 때 발생하는 공동재 유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보건과 마찬가지로 교육에서도 한 개인의 복지는 다른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 교육은 보건 분야의 국제 협력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무지, 잘못된 정보와 교육 부족은 '전염성'을 갖는다. 출신, 문화와 처한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정의롭고 지속가능하며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의존한다. 이러한 깨달음이 교육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외적으로 교육에 대한 공공 자금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

3. 공공행동을 위한 선언문

보고서의 이 부분에서는 주요 메시지를 통합하여 핵심 권고사항의 요약을 제시한다. 이 장은 보고서 개요로서 게시 및 배포될 수 있도록, 서론에서 다룬 요소들을 다시 언급하면서 보고서의 출발점, 근거 및 구성을 제시하여 그 자체로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설계된다. 본질적으로, 이 부분은 확장된 인본주의의 관점에서 작성된 **공공행동**과 재생적 교육을 위한 **선언문**을 구성하며, 인간의 지구, 서로, 그리고 기술과의 관계에 대해 필요한 재고찰을 기술하고 교육을 공공재와 공동재로 구축하기 위한 사례와 전략을 제시한다.

4. 에필로그 및 계속 이어가기

끝으로, 마지막 부분은 '결론'이라고 칭하지 않고 대신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초대장'으로 표현된다. 이는 사회적 대화, 미래 문해력, 그리고 집단적인 '함께 행동하기 위해 함께 생각하기' 작업을 권고하면서, **교육의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세대 간 토론과 행동**을 촉구한다.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달성된 성과(미흡한 부분에 대한 인정과 함께)와 향후 이어질 수 있는 여러 활동에 대한 고찰을 수록한다. 이 초대장은 현재와 미래 세대에서, 그리고 우리의 과거와의 대화에서 우리 모두가 집단적으로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교육의 미래에 관한 지속적인 토론과 행동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네스코의 전체적인 교육의 미래에 관한 사업과 일치한다.